

현장시선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글로벌 파워브랜드 도약 기반 마련... 도민 신뢰 보답

끝 모를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해보다 다시다했던 2021년을 뒤로하고,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올 한해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며, 도민 개개인이 품은 꿈과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2022년이 되길 기원한다.

에, 제주관광공사는 보다 고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제주관광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 우선, 올해 제주관광공사는 위드코로나 시대 제주관광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과 접근성 회복에 전념하겠다. 방역 안전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개방에 맞춰 직항노선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채널을 조기에 복원시켜 도내 업계와 함께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자 한다.

발굴·육성함으로써 제주 대표 시그니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역할을 집중하겠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제주다움을 반영한 문화 이벤트를 도내 전역에서 연중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제주 여행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한편, 지역으로 파급되는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 콘텐츠도 기획하겠다.

석을 통한 제주관광 조사통계의 기초 연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면세사업은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입점객 수 확대를 위한 방문 매력도를 끌어올릴 것이며, 온라인 면세점을 보다 더 활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 이익을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픽 뉴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ra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details.

열린마당

올레길은 이래서 좋다



고상선 제주올레아카데미자원봉사자

등산을 취미로 해 그동안 한라산은 물론 지리산, 설악산 등 많은 산을 올랐고 또한 제주산악회 회원으로 일본 최고봉 후지산(3997m)을 비롯해 2004년에는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642m)도 올랐다. 퇴직을 앞두고는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 스킵(4130m)를 다녀오기도 했다.

력이 좋아졌음을 느끼고 있다. 두 번째는 올레길에 산재해 있는 제주의 역사, 문화 유적지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만 있는 방이시설인 연대, 봉수대, 등대시설인 도대불, 액운을 막는 방사탑, 또한 해안가 웅천수라든가 꽃자왈도 알 수 있었다.

Advertisement for 'Seosan Sangsok Hangeungin Gonggo' (Seosan's Best Public Works)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satisfied customer.

Advertisement for 'Baekdoraji Bommal' (Baekdoraji Bommal)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satisfied custom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distributor.

Advertisement for 'Takwulhan Seonbeok Hwasilhan Gwanggo Hwoga' (Takwulhan Seonbeok Hwasilhan Gwanggo Hwoga)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satisfied custom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gency.

Large advertisement for Hanra Ilbo newspaper, highlighting its status as the top newspaper in Jeju and its commitment to providing quality news and advertising services.

Advertisement for 'Bangsu Danyeol Ure Tan Ure A' (Bangsu Danyeol Ure Tan Ure A)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satisfied custom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nstruction company.

Advertisement for 'Bangui Shindeulrim' (Bangui Shindeulrim)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satisfied custom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unseling center.

사설

감귤 상품 기준 조정, 농가 의견 중요하다

제주도가 감귤의 상품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골자는 감귤농가가 자체 폐기하거나 주스용 등으로 가공되는 '비상품' 중 일부를 시장에 유통하는 방안이다.

크기와 당도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당도·크기 규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 내다팔 수 없다. 이 때문에 당도·크기 규격에 미달한 비상품 감귤이 한해 10만t에 이르면서 처리난에 시달리고 있다.

교통 사망자 통계 후 최소 '50명', 아직도 많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제주가 관광지 개발 붐에다 경제 규모 확대에 힘입어 도로 증설, 차량 대수 증가, 렌터카 호황 등을 부르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를 기록하다 감소세를 전환했고 작년 확 줄어든 것이다.

년 66명, 2020년 68명 등 감소세에서 작년 50명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망사고 70% 이상이 운전 부주의나 운전 미숙에 의해 보행자를 치거나, 차량간 충돌, 차량 단독 등이었다.